

Vol.230

2021 06

Open 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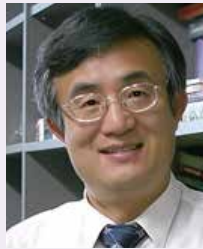
박해와 선교현장
에티오피아 (Ethiopia)

사역보고
학교프로젝트

현장스토리 1
에티오피아 정교회(EOC)에서 개신교로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혼란과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

김성태 교수(한국오픈도어 공동대표/이사장)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경적으로 70이란 숫자는 의미심장하며, 전환기적 시기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암울한 기운이 사라지고,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리운 고국으로 귀환하기 시작하듯이 한반도에 평화의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유엔의 강화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보다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이전과는 다르게 지속적인 긴장 상황입니다. 중국은 시진핑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대일로 정책을 중심으로 대국굴기와 패권정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교회가 상당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백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며 전 세계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종종 선교사와 가족들이 이 질병에 희생되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북한의 내부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국가 차원의 봉쇄정책이 시행되는 중에 일반 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는 작년 여름에 발생한 3번의 연이은 폭풍으로 파괴된 가옥과 전답을 아직도 완전히 복구하지 못했는데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봉쇄정책은 이들 주민들에게 더욱 큰 절망감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정

은 정권은 주민들을 총동원하여 각종 국가 차원의 건설에 80일 전투라는 명목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지역이 혼란과 위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종종 기독교공동체 안에서도 사랑과 섬김으로 겸손하게 일하기보다 조직이 커지고, 프로그램이 많아지며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될 때 잘못하면 제도주의적 위계구조의 관료적 행태가 나타나므로 교인들을 상처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혼란과 위기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거느리시고, 조용한 감람산 기슭으로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혼돈 속에서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시고 용기 있게 메시아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여기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으셨습니다. 핍박도 중상모략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금년에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 세계의 고난 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돕는 일에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더욱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적 후원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전 세계의 고난 받는 교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에서 생명줄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때에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와 헌신이 고난받는

교인들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헐벗고, 전염병의 위협에 시달리며, 악한 자들에 의해 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연약한 지체 교인들을 돕게 될 때 그것은 실상 예수님을 돕는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혼란의 시기에 더욱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하며 모든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씻으며 한국교회에 주신 모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고난받는 교회와 교인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배후에서 주님으로 일하고 계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OpenDoors 7가지 핵심 가치



- 01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02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 03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04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05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0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07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CONTENTS

- 04 북한선교현장 - 탈북민 수기 - “신앙의 자유를 찾아” (4)
- 08 박해와 선교현장 - 에티오피아
- 12 사역보고 - 학교프로젝트
- 14 현장스토리 1 - 에티오피아 정교회(EOC)에서 개신교로
- 16 현장스토리 2 - 에티오피아의 MBB형제, 칼리드 이야기
- 18 WWL2021 기독교박해국가를 위한 기도
- 20 2021년 어린이 박해지도
- 21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파송선교사 모집
- 22 희망의 선물 캠페인 - 빅터 형제의 메추라기 사업

2021년 06월호 | 통권 230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근, 박윤환,
 이동현, 배준섭, 윤상덕, 안창호 이사
 사무총장 _정규일 목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최임경, 문민환, 전신애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 원 계 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4)

- 신앙과 직장생활, 그리고 복송 -

마리아 자매

가까스로 그 산골에서 탈출을 하고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나의 탈출을 도와주신 조선족 아주머니께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자기 양딸 처럼 데리고 돌봐주시고 자기 집에 함께 살자고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 것이다. 덕분에 나는 다시 팔려나가지 않고 그분 집에서 지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께서 나에게 두꺼운 책을 건내시면서 이런 책을 본 적이 있느냐고 하셨다. 바로 성경책이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성경을 본 적도 없었던 나에게 아주머니는 교회에 가면 좋으면서 나를 조선족 교회에 데리고 가셨다. 그 당시 아주머니도 신앙심이 투철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선족이 귀한 그 지역에서 다른 조선족 분들과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 본인도 참석하시면서 나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가셨던 것이다.

난생 처음 방문한 교회는 신기하고 새로운 것 투성이었다. 특히 설교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북에서 주체사상을 머리에 인이 박히도록 학습받았다 보니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였고, 당연히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중국의 외진 동네에 이렇게 조선말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뽕 풀리는 것 같이 시원했다. 잘 하지도 못하는 중국말을 떠들거리면서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다가 편하게 말이 통하는 상대가 있으니 확실히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나는 신앙심은 없지만 매주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찬송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

져나왔다. 남한에서도 익숙한 ‘반드시 내가 너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은 복음성가나 ‘나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날따라 그 노랫말과 음율이 마음에 다가왔다. 3살 5살 두고 온 아이들이 많이 생각나고, 엄마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 처지에 마음이 아렸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에 있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소위 말하는 ‘은혜’를 찬양가운데 경험하면서 나는 더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말씀도 읽고 마음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주님 안에서 불안한 타향생활을 하는 나그네의 외로운 마음을 달랠다. 교회 식구들은 편견이나 배척이 아닌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다. 정말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고, 우리 고향 땅에 복음으로 통일이 되길 함께 기도했다.

처음 일자리는 교회를 통해 소개받았다. 중국의 흔한 양꼬치구이집의 주방이었다. 그렇지만 겨우 열흘밖에 일하지 못했다. 접대하는 중국 아이들이 전달하는 메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금 교회에서 한국 식당의 주방을 소개받았지만 이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했다. 일을 시작한지 2달 정도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식당에 공안이 들이닥쳐서 직원들에 대한 신분확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손님인 것처럼 해서 그 즉시로 집으로 도망가서 언제라도 피신할 수 있도록 짐을 쌌다. 그후에 다행히 조선족 분이 하는 회사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다. 비록 보수는 크지 않았지만 기숙사도 있고 언어적으로도 불편이 없었다. 다만 부족한 보수를 채우기 위해 새벽 2시에 자전거 타고 40-50분을 달려가서 아침식사 주방조수 일을 하고, 다시 회사 식당에 출근해서 회사 점심을 만들었다. 오후에는 동네 당구장 사장님 집에 가서 도우미 일까지 했다. 그리고 도우미 일을 하던 당구장 사장님의 소개로 다시 한국 회사 식당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회사의 중국인 직원들에게는 탈북자 신분을 숨기고 조선족으로 알게 했다.

회사가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기에 나는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교회가 멀어도 예배가 있는 날이면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를 출석했다. 지금도 성탄절날 울동 대회 나갔던 일이 참 기억에 남는다. 돌이켜보면 중국에서 지내는 동안에 가장 좋았던 시절이었다. 또 봉급도 넉넉해서 가능한 사람을 통해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조금이나마 어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 날은 타 기업 견학이 있어 반장 이상 직원들은 모두 자리를 비웠고 몇몇 직원과 차장님 한 분만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 나는 식당에서 식료품 재고를 확인하고 장부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수위 아저씨가 중국말로 나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당황스럽게도 공안 2명이 수위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공안은 나에게 ‘밥하는 아줌마냐 물어볼 것 있다.’라고 하면서 돼지고기 이야기를 꺼냈다. 당시 돼지 관련 질병이 돌아서 시장에서 해당 고기를 팔지 못하도록 했는데 혹시 돼지고기 쓰고 있는 것이 있냐는 질문이었다. 찻잔한 마음은 있었지만 식품 위생 관련 일로 온 것으로 보여서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다. 그러자 공안은 주방에 들어가보라고 했다. 그리고 주방으로 안내하니 대뜸 내



중국어 억양을 지적하며 ‘억양이 사투리 쓰는데 그 동네 말 같지 않다.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나는 조선족 행세를 해야 했기에 연길 사람이라고 말을 돌려댔지만 공안은 거주증을 보자며 계속 나를 추궁했다. 거주증을 발급받으려면 파출소를 들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나는 호구도 없으니 거주증이 있을 리가 없었다. 집에 놓고 왔다고 계속 돌려댔지만 공안은 기어코 파출소에 가서 거주증을 확인하자고 했다. 위생검사를 핑계로 했지만 사실은 나에게 대한 신고를 받고 잡으러 온 것이다. 공안의 독촉에 나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신발 바꿔 신고, 핸드폰만 들고 공안을 따라 파출소를 갈 수밖에 없었다.

파출소에 가니 공안은 내 이름과 지역을 조회해보기 시작했고, 당연한듯이 제대로 조회가 되지 않았다. 그때부터 파출소에서는 공안과의 긴 씨름이 시작되었다. 공안은 솔직히 말하면 도와준다면 나를 구슬리기 시작했고, 나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었다. 그렇지만 잡아떼다가 가만히 있을 사람들인가... 공안은 내가 살던 기숙사에서 평소에 내가 꼬적이던 종이를 구해왔고 인근의 조선족 사람을 불러 번역을 시켰다. 거기에는 나의 처한 처지와 진솔한 심정이 적혀 있었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공안국에 전달되었다. 나는 점점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었다.

그때 우리 사장님의 전화가 왔다. 나는 사장님께 ‘마음의 준비는 되었어요... 감사했고 미안합니다.’ 하고 말씀

드렸다. 그렇지만 사장님은 아직은 그런 말을 하기는 이르다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얼마 후 파출소 창문으로 사장님 차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 보였다. 아마 이곳 저곳 알아보면서 나를 구할 방법을 찾는 중이신듯 했다. 생면부지인 나를 생각해주시고 안타까워해주시는 것이 느껴져서 그 위기의 상황속에서도 감사했다.

파출소 분위기는 점점 경직되기 시작했다. 제대로 말하라는 공안의 호통이 이어지고 심문이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여자 공안이 나에게 다가왔다. 얼굴은 50대쯤 되어 보이는데 옷에 달린 별을 보니 딱 보아도 높은 직위에 있거나 상부에서 내려온 것 같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조선말로 대뜸 “당신 어디서 온 것이냐?” 하고 추궁했다. 조선말로 나를 추궁하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 이제는 안되는구나...’ 라고 직감할 수 있었다. 나는 결국 북한에서 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북에서 왔다고 인정하자 나머지 조사는 간단하게 끝났다.

나는 이제 잡혀가는 처지가 되었다. 회사에 사무실에 일하는 조선족 장 아주머니께 내 기숙사 방에서 간단한 사품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렇지만 장 아주머니는 큰 가방에 옷을 최대한 많이 챙겨서 담고 나에게 갖다주었다. 장 아주머니는 가방을 건내며 평평 울었다. 그 집을 받아들이고 중국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짐을 챙겨주신 장 아주머니하고 회사의 김 차장님이 오셔서 배려해주겠다고 공안에게 문의를 했고, 공안차에 탈 수 있게 허락을 받았다.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서로가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다. 그저 목이 짹 메일 뿐이었다. 다시 만나는 기약이 없는, 생존의 기약 없는 길임을 알기에 서로 울기만 했다. 그 와중에 장 아주머니는 “왜 자기에게 말 안했나... 내가 알았으면 빼돌려서 회사 식당 말고 가정부 같은 일이라도 소개해서 들키지 않게 했을텐데...” 하며 안타까워했다.

한 시간 넘게 달리던 차가 멈췄다. 구치소 앞에 도착했다. 장아주머니와 차장님은 나를 안고 우시기 시작했다. 나도 덩달아 울음이 터졌다. 차장님은 중국 돈 2천원을 주시면서 혹시 모르니 챙기라고 하셨지만 미안한 마음에 못받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중 약간만 받았다. 차장님은 나에게 꼭 살아서 다시 오라고 물기 가득한 눈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사장님께서 애쓰셨지만 일이 이렇게 되어 미안하다면서 사장님께서 차마 얼굴을 볼 수 없으셔서 못나오셨다고 했다.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잡혀가는 와중에도 위로가 되었다. 구치소에서는 약 12일동안 구류되어 있었다. 구치소에서는 북송의 스트레스가 심했다. 정확하게 어떤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물어볼 곳도 없으니 ‘돌아가면 총살이라도 당하는 것 아닐까?’ 하며 답답한 마음에 전전긍긍했다. 구치소에서는 식사로 빵을 배식했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도 안되고 평소 먹던 밥이 아니다보니 나중에는 구토가 났다. 구치소 측에서 의사를 불러다가 진단을 했는데 구치소 빵으로는 안될 것 같다고 나에게 챙겨온 돈이 있냐고 물었다. 감옥에서도 돈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야 알았다. 가진 돈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함께 교회 다니던 교우분 한 분의 연락처가 생각나서 전화로 5백원 정도 부탁드렸고, 빵 대신 다른 먹을만한 음식을 사먹을 수 있었다. 나중에 보니 장 아주머니께서 옷가방을 싸주실 때 내 지갑도 챙겨서 구석에 넣어주신 것을 알았다. 감옥에서도 돈이 요긴한 만큼 잘 챙겨놓았다. 중국 구치소 생활은 불편했지만, 북한의 수용소에 비교하면 이곳이 천국이라고 할 만큼 좋은 곳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저 창살 틈 사이로 날아다니는 새들이 보일 때마다 너무 부러웠다. ‘이 순간 새라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할까?’

그래도 우울하게 있어서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나름대로 쾌활하게 지내려고 애썼다. 함께 갇힌 중국 죄수들하고도 친하게 지냈다. 하루는 휴식시간에 중국 죄수들에게 “내가 노래 한 곡조 뽑으면 들어보겠는가?” 했더니 한번 해보라며 명석을 깔아주는 분위기가 되었다. 나는 신문 말아서 마이크처럼 잡고 노래를 불렀다. 아마 한국가수 김종환씨의 ‘백년의 약속’ 이었던 것 같다. 다들 깔깔거리며 잘부른다고 좋아했다. 그렇게 노래 한 곡을 끝마치고 분위기가 흥겨워지는 그 때 갑자기 철문이 열리고 간수가 품을 잡으며 들어왔다. 간수는 ‘○○○, 앞으로 나와!’ 하며 나를 불렀다. 그리고는 죄수들 앞에 나를 세우고는 철창 안에서 노래하고 웃었다고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분위기가 싸해졌다. 그렇지만 내가 잘 몰랐다고 언어가 서툴러서 그렇다고 하니깐 간수는 짐짓 큰 아량을 베풀었다는 듯이 한번만 특별히 용서해주겠다고 하고 넘어갔다. 그렇게 위기일발의 상황을 넘기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데 다른 죄수들이 “간수들도 카메라로 재미있게 봤으면서 괜히 들어와서는 뭐라 한다”며 내 편을 들어주었다.

짧은 구치소 생활이 끝나고 나는 다시 이송되었다. 점점 국경 근처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결국 북송되는 것이다. 봉고차 크기의 이송 차량에 앉았는데 내 옆에 17살 여자아이가 앉았다. 계속 울먹이던 이 아이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 양강도의 한 마을 이름을 이야기했다. 새파랗게 어린 아이가 그간 얼마나 모진 고초를 당하고 결국엔 17살의 나이로 북송길에 끌려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사정을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매여졌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여러 지역을 거쳤다. 차 안에서 나는 감옥에서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혹시라도 빼앗기지 않도록 지갑에서 돈 일부를 챙겨서 일회용 비닐장갑 같은 조그마한 비닐 쪼가리에 퐁퐁 싸서는 몸 안에 숨겼다. 그런데 차를 운전하는 내가 뒤에서 꿈틀꿈틀 하니깐 그런데 그 운전수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눈치였다.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나와 같이 이 운전수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국경으로 보내졌을까?

중국은 참 넓은 나라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이 이어졌다. 봉고차로 이동하던 우리는 뒤이어 2층짜리 침대차를 타고 이동했다. 물론 침대 기둥에 수갑이 채워진 채였다. 문득 내가 챙겨온 옷 중에 한국 라벨이 있는 옷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혹시나 북한에서 발견되면 꼬투리 잡힐까 싶어서 그 옷들을 창문 밖으로 다 버렸다. 도통 잠을 이룰 수 없고 머리속은 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게 엉켜 정신이 없었다. 멀미 증상까지 보여서 부탁해서 수면제를 받아먹고 억지로 잠을 청했다.

그렇게 긴 시간 이동한 끝에 조중 국경 인근 변방대에 도착했다. 나는 인솔해온 공안에게 핸드폰과 케리어 등 내가 들고갈 가방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다 가지라고 주면서 대신 전화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공안은 물건에 마음이 부드러워졌는지 비록 짧은 시간만이었지만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교회 집사님들부터 해서 나를 잘 챙겨주셨던 분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전화 드린 집사님들마다 말을 잊지 못하시고 영영 우셨다. 나를 마지막까지 배웅했던 장 아주머니께도 전화를 드렸다. 전화를 하는 때마다 울음바다가 되었다. 시간이 없으니 길게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별의 통화를 나눴다.

변방대에서는 보통 인원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데리고 북한으로 내보낸다. 그런데 나에게서 물품을 받은 공안이 기분이 좋았는지 자신이 변방 대장을 잘 안다면서 당일에 내보내게 하겠다고 했다. 변방대에서는 내가 숨긴 중국 돈이나 금불이가 있는지 몸 검사 다 하고는 다른 한 여자 2명하고 같이 차를 태워서 북한으로 출발했다. 함께 탑승한 통역원이 북한을 가리키며 “저기가 너희 조국이다” 라고 하는데 조국이라는 단어가 수갑을 찬 죄인인 내 처지와 겹치면서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내 고향 조국에 죄수로 끌려가니 이 마음이 비길 곳 없었다. 그 와중에 같이 북송되는 옆 사람은 정신이 이상해졌는지 저기가 남한이냐 북한이냐 그러고 있었다. 북으로 들어가는 차 안에서 그렇게 눈물이 났다. 다리를 건너고 점점 가까이 보이는 북한의 모습은 아주 초라하고 서글웠다. (다음 호에 계속)

에티오피아

Ethiopia

인구 : 1억 1,276만 명

주요 종교 : 기독교(59.9%), 이슬람(34.4%), 부족종교(5.6%)

기독교 인구(카톨릭 등 포함) : 67,491,000명

기독교박해 순위 : WWL2021-36위, WWL2020-39위

기독교박해 지수 : 65점

주 박해 요인 : 전통기독교 교파의 보호주의, 이슬람의 억압



에티오피아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에티오피아 정교회(EOC) 신자들은 대개 스스로를 유일한 참된 기독교 교파로 여기며 다른 크리스천들, 특히 복음주의자들을 에티오피아 민족주의와 문화에 대한 하나의 위협으로 여긴다. 에티오피아 북부 지방과 중부지방의 인구 대다수가 EOC 신자들이다. 복음주의자들을 비판하는 설교와 노래들이 흔하다. 일부 EOC 지도자들은 공개적인 비판 뿐 아니라 복음주의자들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금지시킨다. 정교회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면 정교회 신자들로부터 신체적 공격을 당할 수 있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한다. EOC는 비정교회 크리스천들에 대한 자유를, 교회건축을 포함하여, 제한하도록 정부에 로비를 한다. 개신교 회회를 공격하고 거리의 복음주의 전도자들을 신체적으로 공격하고 욕을 해왔다. 물론 모든 정교회

신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이웃국가 소말리아와 수단에서 과격한 이슬람의 발흥은 에티오피아에도 흘러들어오고 있다. 이슬람이 다수인 지역에서 이슬람 리더들이 폭력을 부추기고,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에 의해 크리스천들이 공격을 받고 살해되고 집을 떠나도록 강요당했다. 정부의 무슬림 지도자들 체포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 시골에서, 무슬람이 다수인 지역의 크리스천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공공재 이용을 금지당한다.

이전 정부는 더욱 권위주의적으로 시민사회와 종교기관의 권리들을 제한했다. 한 예로 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종교의식을 방종하는 것을 금지했다. 비전통적인 교회들은 외국의 대리자로 의심받았다. 비전통교회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했다. 2018년 4월 들어선 새 정부는,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던

많은 법들을 수정하였고, 많은 긍정적인 민주적 개혁들을 했다. 그러나 시골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1991년에 내전이 끝나고 여러 종족그룹의 연립정부가 들어서면서 종족 정체성을 존중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것이 일부 그룹에서는 크리스천들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용되었다. 종족지도자들은 때때로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상해, 살해, 추방-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왔다.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에서는 종족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이 혼합되어 있다. 오늘날, 일부 부족들은 크리스천들에게 부족 싸움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보복을 가한다.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전통종교의식이 행해지며 모든 주민들이 지키게 되어있다. 안 지킬 경우 추방의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

정치적 상황

2018년 4월 오순절과 크리스천인 아비(Abiy Ahmed) 총리가 취임하여 2019년 변영당을 창당했다. 이에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TPLF)은 연합을 거부했다. 아비 총리는 일부 국유기업들의 사유화를 포함하여 대규모 개혁을 추진하였고, 에리트레아와의 내전을 끝내고 평화조약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지역공동체의 폭력이 증가하고 수백만명의 난민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종족간, 정치적 당파들의 분쟁이 계속되어 3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발생해왔다. 2020년 8월 예정된 총선이 코로나19로 연기되었고, 티그레이는 인민해방전선이 9월 독립적으로 선거를 실시했다.

*1974년부터 17년간 지속된 사회주의 정권이 1991년 붕괴. 1994년 헌법 제정, 내각책임제와 연방제 채택. 1995년 에티오피아 연방 민주공화국 수립.

티그레이 내전

에티오피아 북단 티그레이 주에서 2020년 11월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TPLF)이 정부군 초소를 습격하자 정부군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시작. 티그레이는 티그리냐인이 다수를 차지하며 TPLF가 정치적으로 주도.

(사진: 티그레이 난민 여인-수단 난민캠프)



TPLF는 25만 민병대를 보유한 무장세력으로 아비 총리와 대립. 아비 총리(남부 오로모족 출신)는 TPLF를 불법세력으로 규정하고 분쟁 지속. 이 분쟁으로 4개월간 정부군과 반군, 민병대 등에 의해 150차례에 걸쳐 민간인 1900명이 학살됐다고 벨기에 겐트대학교의 현지 연구팀이 2021년 4월 발표. 200만 명의 난민 발생.

에티오피아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 **개인 영역** : 이슬람에서의 개종은 조상에 대한 배신이자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금지행위이고 처벌대상이다.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는다. 시골에서 특히 심하다. EOC의 중심부인 북부지역에서는, 개신교로 개종하면 공동체에



서 추방된다. 대조적으로, 남부지역과 오로미아에서는 개신교가 정상으로 받아들여지고 개종을 해도 박해에 직면하지 않는다. 개종한 이들이 기독교 자료를 소유하는 것은 위험하다. 가스펠 음악과 정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성경번역본을 가지는 것은 위험하다. 온라인상에서 신앙을 표현하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가 증가하고 있다. 무슬림이 다수인 시골 지역에서는 크리스천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이 반항 행위로 보일 수 있다. 기독교상징물을 놓았다는 이유로 차량 방화, 차량유리와 주택창문들이 파손되었다.

• **가정 영역** : 일부 지역들에서 크리스천 자녀들은 괴롭힘이나 공격을 당한다.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에서는 크리스천 자녀들도 이슬람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다. 정교회 교인이 개신교 단체에 들어가면, 가족들과 정교회 사제들, EOC의 극보수 단체들이 그 개인에게 가입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고 간주해서 “거룩한 물”을 마시도록 강요를 받는 경우도 있다. 무슬림 지역이나 EOC 지역 모두에서 개신교 크리스천들은 매장지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 **지역공동체 영역** : EOC 지역들에서 EOC를 떠난 사람들은 자녀들이 안전하게 다닐 학교를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역공동체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다. 무슬림 지역에서는, 특히 시골에서, 크리스천들은 차별과 괴롭힘을 당한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시골지역에서 특히 개종한 이들에 대해 신부 납치와 11세 밖에 안된 어린 소녀의 강제결혼도 흔하다. 크리스천들은 지역공동체로부터 감시를 당할 수

있다. 지역 사람들이 때때로 어린아이들을 보내어 교회와 크리스천 가정들을 염탐하게 시킨다.

• **국가 영역** : 이전 정부가 만든 법들은 종교방송과 종교교육을 제한한다. 기독교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한 일이다. 특히 개종한 이들 또는 소수파 개신교 크리스천 단체 소속일 경우에 그렇다. 시민사회 기관들은 계속해서 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러한 규제들을 대부분 풀어주는 새로운 법안이 준비되어 있지만 수년째 새로운 정치 정당이 결성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특히 지방에서 비정교회 크리스천들을 차별한다. 이슬람 지배 지역에서도 그렇다. 무슬림과 정교회 강사들은 복음주의 개신교도들과 오순절파 개신교도들에 대한 비방캠페인들을 벌인다. 개신교도들이 외국의 후원을 받기 위해 신앙을 위장하고 있다고 자주 비방한다.

• **교회 영역** : 이슬람이 지배하는 시골지역과 정교회의 보호주의가 강한 시골지역들에서 신생개신교파 소속 목회자들은 괴롭힘을 당한다. 목회자들은 가장 눈에 띄는 타깃이 되어, 사회적 가치들을 오염시켰다는 고발을 자주 당한다. 이러한 선동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 과격파 이슬람 단체들과 같이 비국가적 단체들도 크리스천 활동들을 감시한다. 예배 중인 교회들을 공격하고 교회재산을 파괴한 사례들이 많다. 다른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종한 신자들이 특히 공격을 받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신앙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WWL2021 박해보고

(2019년10월1일~2020년9월30일 기간)

*10,100은 정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

신앙 때문에 살해된 크리스천 수	10
신앙 때문에 구금된 크리스천 수	10
신앙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한 크리스천 수	100
크리스천 소유의 집과 재산이 공격, 파괴, 약탈, 몰수	100
크리스천 사업장이 공격, 파괴, 약탈, 몰수	100
신앙 때문에 집을 떠나거나 피신해야 한 크리스천 수	255

※ 2020년 7월에 수도 아디스아바바와 오로미아 주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시작된 시위들로 인해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280명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되었다. 많은 뉴스매체들이 이를 종족분쟁으로 불렀지만 사망자의 상당수는 오로모 족 크리스천들이었다.



(사진: 오로미아 주 폭력 사태 중 훼손된 성경)

에티오피아 교회 역사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 가장 오래된 국가 중의 하나이다. 4세기에 기독교가 들어갔다. 악숨 왕조 시대로 왕가가 크리스천이 되었고, 기독교 신앙이 점차 그 땅을 지배하게 되었다. 지배계층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데 이어, 에티오피아 교회는 이집트의 콥트정교회와 강력한 관계를 맺었다. 결과적으로, 에티오피아정교회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총대주교를 영입하는 관행이 1959년까지 이어졌다. 에티오피아정교회는 1974년까지 국교로 남아있었다.

로마카톨릭도 들어왔으나 카톨릭선교사들은 추방되고 에티오피아는 1632년부터 150년간 지속적으로 '폐쇄정책'을 썼다. 오늘날은 수십만명의 로마카톨릭 교인들이 존재한다.

개신교는 루터교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1866년부터 스웨덴 루터교 선교사들로 시작되었고, 1920년대에는 스웨덴의 다른 교파 선교사들이 들어왔다. 이어 세계 여러 각국의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1927년에는 독일선교사들이 들어왔고, 1940년대와 50년대에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다. 루터교 사역은 대부분 에티오피아 복음주의 교회 메카네 예수스와 통합되었다. 미국장로교는 1920년에 들어와 오로모 족 가운데 사역을 시작했다. 이탈리아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장로

교선교사들은 추방되었다. 그들은 떠나기 전에 벤엘복 음주의교회를 조직해놓았는데, 이 교회가 1970년대에 메카네 예수스 교회와 통합되었다.

수단내지선교회(SIM)는 1927년에 토마스 램비 박사의 지도 아래 에티오피아에서 광범위한 사역을 시작했다. 이탈리아의 추방과 세계2차대전의 종료로 더 많은 기독교단체들이 들어왔다. 1950년에는 미국 침례교(Baptist General Conference of America)가 들어와 암보(아디스아바바 서쪽)에서 조직화된 선교를 시작했다. 또한 오순절파가 들어와 2개의 큰 현지인 교회를 만들었다.

에티오피아 기독교인 현황

정교회	45,600,000명(67.6%)
카톨릭	900,000명(1.3%)
개신교 기성교단	18,900,000명(28.0%)
독립교단	2,630,000명(3.9%)
무소속	215,000명(0.3%)
이중소속	-754,000명(-1.1%)
합계	67,491,000명(100%)

에티오피아의 분쟁 속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는 크리스천들이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평화를 위해, 여러가지 이유에서 박해받는 성도들과 교회, 교회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크리스천인 아비 총리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학교프로젝트 마을공동체와 화해하다

에티오피아 시골에 한 작은 크리스천공동체가 무슬림마을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픈도어는 학교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실레쉬(Sileshi)라는 한 현지 목회자의 제안을 통해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밝고 활기 넘치는 학교 구내는 높은 언덕 정상에 위치했고 우거진 나무들로 둘러 쌓여 있다. 학교 버스는 어린 학생들을 높은 언덕을 이동할 수 있게 실어 나르고 학생들 한 명 한 명 큰 가방을 메고 도시락 가방을 들고 버스에서 내린다. 일단 학교 구내에 들어서면, 아이들은 야자수 아래 운동장에 모여 행복하게 뛰어 노는. 어떤 긴장감도 존재하지 않고 무슬림 학생과 크리스천 학생을 구별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아이들은 지치지 않고 빙글빙글 돌고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즐겁게 뛰어다닌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교 전체가 아침 조화를 위해 모인다. 학생들은 줄 맞춰 서서 선생님들께 인사를 하고 교기가 게양되는 것을 기다린다. 그리고 나서 노래가 시작된다. 모국어로 몇 곡을 먼저 부르고 영어로 몇 곡을 부른다. 비록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을 지라도, 학생들의 풋풋한 열정은 보는 이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만든다.

큰 꿈 이 학교는 어떻게 하나의 프로젝트가 나눠진 공동체를 연합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모델이 된다. 학교가 지어지기 전, 크리스천들은 이 마을에서 굉장한 고통을 겪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예배를 드렸고, 무슬림들로부터

끊임없는 악담을 견뎌왔다. 교회는 여러 번 불태워졌고 많은 신자들의 집도 또한 파괴됐다. 핍박은 견디기 어려웠다. 운이 좋게도, 그 마을의 목회자가 대범하게도 꿈을 가졌다. 실레쉬 목사는 교회 땅에 학교를 짓기 원했다. 그는 그곳이 수많은 의심과 적대감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지역 공동체로부터 크리스천들이 신뢰를 얻는 장소가 되길 소망했다. 이 지역에 다른 학교들이 있었지만, 실레쉬 목사는 이 학교가 학습 능력이 뛰어나도록 알려지길 바랐다. 그리하여 무슬림 부모조차 자녀들을 이곳에서 교육하길 원하게 말이다. 오랫동안, 실레쉬 목사의 꿈을 그저 꿈일 뿐이었다. 그러나 오픈도어가 이곳 크리스천들의 곤경에 처한 이야기와 실레쉬 목사의 큰 비전을 듣고 초등학교를 세우기 위한 후원을 했다. “우리는 대다수 무슬림인 주민들이 크리스천들을 마을공동체의 원수로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원합니다. 이런 학교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동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오픈도어 디렉터, 야신 형제가 설명했다. 지역 주민의 85%가 무슬림인 마을에서, 실레쉬 목사는 어떤 지위도 영향력도 없었다. 그들이 그의 계획을 들었을



때, 무슬림 학부모들은 실레쉬 목사가 학교를 이용해서 자기 아이들을 세뇌시키려는 것이라고, 실레쉬 목사를 배반자로 고소했다. “당신의 종교는 좋지 않습니다. 이단입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시키려고 합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러나 2년의 끈질긴 기도 끝에, 실레쉬 목사의 꿈은 마침내 이루어졌다. 2018년, 학교가 완공되었고 이제 종교적 배경이 다른 180명 이상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다. 어린이들이 존중, 친절, 기쁨, 선행, 평화, 인내, 온유와 절제를 배우는 장소이다.

이 학교 프로젝트의 목적은 주로 복음전도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사회 변두리로부터 데려와 무슬림 공동체가 그들의 가치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무슬림이 지배적인 마을에 크리스천들이 공동체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음을, 환영받을 존재임을 보여주길 원했다. “주일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말로 전할 뿐 아니라 이웃에게 복음을 보여주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제자로 훈련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약 40명의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 개교 이래 알레마유(Alemayew)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책임지고 있다. 매일 더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낸다고 한다. “처음에 학부모님들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훌륭한 교육을 제공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들의 인식이 바뀌었고, 이제 그들은 우리를 친절하게 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다 무슬림 아버지, 무사(Mussa)는 큰 딸 메카(Meka)를 학교에 등록시켰다. 처음에 그는 딸이 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꺼려했다. “제 친구들은 딸을 이 학교에 보내면 개신교도가 되는 줄로 생각하고 반대했어요. 그러나 일년 후, 많은 친구들이 자녀들을 이곳에서 공부하도록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골 지역에서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곤 했다고 그는 설명한다.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와 기술을 더 많이 접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이제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딸이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학교가 더 성장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저는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학교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정말 잘 돌보십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한없이 놀고, 두려움없이 예배하다 콘짓(Konjit)은 세 아이의 엄마이고 그리스도인이다. 콘짓에게는 이 학교를 다니는 딸이 하나 있다. “제 딸은 학습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저에게 자주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가르쳐주어서 이제 저도 함께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어울려 놀면서 크리스천과 무슬림 사이의 냉혹한 장벽을 부수어 버린 일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 “제 딸은 크리스천 친구와 무슬림 친구가 있어요. 때로는 근처에 사는 무슬림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물을 마시고 가요.” 콘짓은 이제 큰 소리로 예배하는 것에 자유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제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무슬림이 두려웠기 때문에, 밖에서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가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큰 발전을 이루고 있고 재정적으로 독립해왔다. 또한 학교는 더 많은 교실을 짓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받을 수 있을 희망한다. 학교는 지역 공동체가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상당히 변화시켜왔다. 실레쉬 목사는 말한다. “예전에는 그들이 교회를 완전히 거부했고, 무슬림 공동체는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교회를 알아주기 시작했고 그들의 자녀들을 이곳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실레쉬 목사는 오픈도어 후원자들과 이 프로젝트를 위해 중보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EOC)에서 개신교로- 마나예쉬 이야기

“예수님을 영접하자 나의 모든 짐이 벗어졌습니다.”

4자녀의 어머니인 마나예쉬는 이제 더 이상 젊은 여성이 아닙니다. 평생, 많은 고난을 보아왔습니다. 그녀는 에티오피아의 외딴 마을에서 삽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전통적인 정교회 신앙을 따르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는 오랫동안, 에티오피아인이라는 것은 정교회(EOC) 신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나예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라났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며, 마리아와 천사들을 숭배하였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같은 배경을 가진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나예쉬의 어머니가 개신교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정교회내에서는 극도로 불쾌한 일입니다. 어머니는 마나예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주셨는데, 나는 그 복음이 진짜라고 믿게 되었어요...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나의 모든 짐이 벗어졌습니다. 사는 것이 고생이었는데 쉬워졌어요. 나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 애들을 키웠거든요.”라고 그녀는 우리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고생은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나무와 불쏘시개를 팔아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것으로는 자녀들을 입히고 먹이고 학교에 보내기에 늘 부족했고, 늘 걱정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녀의 삶에 들어오신 후, 점차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에, 나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졌어요...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물리적인 삶의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녀가 젊어지고 있던 감정적인 영적인 짐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나예쉬는 놀라게 일을 해서, 농사지을 소 한 마리를 살 돈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시름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을사람들은 마나예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너, 펜테(개신교도를 가리키는 비속어), 여기서 더 뭘 바라는 거야? 여기서 떠나.’라고 했지요.”

그건 제안이 아니고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이 마나예쉬를 위협할때마다 마나예쉬는 그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예요...”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마나예쉬는 개신교 교회에 출석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에티오피아 정교회(EOC)에 남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새로운 신앙에 대해 관용적이어서, 살아 있는 동안에는 마나예쉬를 이웃의 위협으로부터 어느정도 보호해주었습니다. 그러나 14년 전, 남편이 죽자, 마나예쉬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죽은지 4년이 지나, 마나예쉬와 마을공동체의 긴장이 끊어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 소를 빼앗아가고 우리 집을 약탈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마나예쉬가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또 다시, 그들은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살아서는 안돼, 이 펜테!”

그 소는 마나예쉬가 ‘테프’(에티오피아의 주식인 곡물) 농사를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를 이용해서 땅을 갈고, 테프를 심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먹을 곡식을 재배할 수 있었어요...이제 나는 애들 입힐 옷도 없어요. 내 옷도 없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슬펐어요. 또...이제 일도 없으니, 너무 괴로와요.”

마나예쉬의 아들 아베네제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밭에서 수확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

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학교 수업료를 낼 수 없을 때도 있었어요.” 마나예쉬는 그 마을을 떠날 생각도 해봤는데 갈 데가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때 믿음의 결심이 마나예쉬 안에 불타올라 그리스도 안에 남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저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경제적 자원(소)은 빼앗아갔지만, 그게 내가(그리스도를 따른 것을) 후회할 이유가 되나요? 결코 아니지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에티오피아의 오픈도어 파트너는 마나예쉬의 고난에 대해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그때를 기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나를 (고난에서) 들어올려 주셨어요.” 우리는 마나예쉬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으로 소 2마리와 양 몇 마리를 사고, 약탈당한 집을 고치느라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런 도움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도움이 없었다면, 제 생명은 위험에 처해있었을 거예요. 제 아이들과 저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뭘 입고, 뭘 먹었겠어요?” 이제 마나예쉬에 대한 투자는 작지만 성공적인 양의 목장으로 발전했습니다. “내가 산 양들이 새끼를 낳았고, 나는 그 새끼양들을 팔 수 있었어요. 처음에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나는 또 송아지 두 마리와 암소 한 마리가 있어요. 내가 얻은 수익으로 산 거예요...또 당나귀도 한 마리 있어요. 그건 주님이 주신 거예요...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온 거죠!”

빛과 소금 우리가 마나예쉬를 방문했을 때는, 그녀의 어머니가 소천하신 직후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조의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마나예쉬와 자녀들은 자기 마을에서 아웃사이더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나예쉬는 그 마을에서 어느정도 존엄성을 되찾고 사회적 입지를 가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상실의 시간에 친절함을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들 아베네제르가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말하고, 노래하고요, 이 모든 걸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는 훨씬 좋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이 첫번째 간증이 되잖아요. -시골에서는 그래요.”

여러분의 후원은 마나예쉬와 그 자녀들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고, 그 사회에서, 아직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나예쉬에게 물을 것입니다. “무엇이 너를 이렇게 변화시켰나? 너의 고난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너의 자녀들은 어떻게 학교에 다니게 된 거야?” 마나예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저들도 변화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셨잖아요, 돈이 변화시킨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은 우리를 매우 많이 변화시켜요.”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저는 변화되었고, 이제 가치를 발견했어요. 나는 우리 애들을 키워냈고, 애들은 옷도 잘 입고 있습니다.” 마나예쉬는 말합니다.

슬프게도, 소외와 외로움은 에티오피아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존사역(방문사역)을 통해, 편지쓰기, 기도운동 캠페인을 통해, 박해받는 교회들에게, 비록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거부당하고, 박해받는 중에도,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을사람들은 마나예쉬 가족을 여전히 정교회 소속 보다는 멀게 대합니다. 마나예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녀들이 계속 주님의 집에 머물러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또한 마나예쉬의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하여 주님의 공급하심의 간증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에티오피아의 MBB형제, 칼리드 이야기

가장 성공적인 SED(사회경제적지원) 수혜자의 한사람으로 소개했던 에티오피아 칼리드 형제는 작년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오픈도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에 그를 방문하여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믿음에 견고한 그의 소식을 전하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에티오피아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칼리드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후에,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일자리를 찾던 중 오픈도어의 사회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을 보고 마이크로 대출을 신청해서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출은 제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가게는 확장되었고, 가게에서 얻은 수익으로, TV, 냉장고를 구입했고, 불을 피워 조리했었는데 오븐도 샀어요. 가족에게 단순 생계 이상을 공급하게 됐어요.”라고 그는 작년에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가게의 수입으로 칼리드는 농사지를 땅을 빌려 양파와 옥수수를 재배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작년2020년은 또다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메뚜기떼의 습격과 그가 사는 지역에서의 정치적 분쟁으로 칼리드는 엄청난 타격을 입어야 했습니다.

먹성 좋은 메뚜기떼들은 칼리드의 농작물을 파괴했습니다-코로나19 봉쇄조치에 더해 누구라도 낙심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칼리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봄 통화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임차한 땅에 몇 달 내로 테프(에티오피아 주식인 밀 세곡물)를 심으려고 해요.”



그동안, 그는 가게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매출은 적었지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타격은 코로나19보다도 정치적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분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칼리드는 아내와 딸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혼자서 가게와 집을 지켰습니다.

정치적 분쟁이 가라앉은 후, 아내 물루와 세 딸, 사라, 드보라, 리디아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요. 또 저는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라고 칼리드는 근황을 나눴습니다.

칼리드의 신실한 복음증거는 그 자신의 가족 안에서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두 명, 그리고 형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통화를 마치기 전, 칼리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재정적으로 후원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MBB자매, 파투마와 아mina

파투나(19)와 아mina는(16) 2019년 말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 자매의 아버지는 독실한 무슬림으로 두 자매를 무슬림으로 키웠습니다. 크리스천이 된 사실을 숨기고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던 두 자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두 딸이 이슬람을 떠났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의 모든 소지품을 빼앗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서부에 있는 그들의 마을은 원래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니 더욱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오픈도어 파트너들을 통해 여러분의 후원이 이 두 자매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새 집을 얻은 히워트와 자녀들

에티오피아 외딴 시골에 사는 50세 여인 히워트는 글을 모르는 8자녀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늘 술담배에 젖어있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고 속에서 그녀는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주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오셨어요. 나는 손을 들고 그분을 모셔들었습니다. 나는 말했어요, ‘나는 마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리

고 성경에 나오는 말로 다시 말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하던 내가 이제 봅니다!” 그녀는 또한 남편의 임종을 지키며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 유일한 크리스천인 그녀에게 이웃들은 호의적이지 않았고 작년에 그녀의 집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오픈도어는 불타버린 집을 새로 짓도록 지원하였고, 찾아가 교제를 나눴습니다. 히워트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힘을 얻는 여인이었습니다.



13 수단



인구
4,350만 명 / 기독교인 197만 명
지도자
아브델 파타 알-부르한 중장
박해지수 (6점 감소)



수단은 종교적 자유를 향한 중대한 걸음을 내디뎠다-물론 아직 전투가 끝난 것은 아니다.

30년간의 이슬람법이 종식되고 있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이 더이상 배교죄로 사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상흔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 무슬림출신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오는 심한 박해에 직면한다. 그들의 믿음이 발견되면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추방과 배척과 차별을 당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여전히 신앙을 비밀로 지키는 이유이다.

오픈도어는 수단에서 지역교회들과 연합하여 제자훈련, 신학교육, 박해대비 훈련, 트라우마 케어, 지역개발과 수입창출 프로젝트들을 진행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단에서 종교의 자유를 향한 진전이 있음을.
- 무슬림 출신 크리스천 성도들이 반대를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 크리스천들이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가지게 되도록.

14 사우디아라비아



인구
3,470만 명 / 기독교인 120만 명
지도자
살만 빈 압둘라지즈 알 사우드 왕
박해지수 (1점 감소)



사우디아라비아에-이슬람법에 의해 법체계가 확립된 국가- 사는 크리스천들은 심각한 반대와 죽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신앙을 숨긴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극소수의 크리스천들은, 특히 가족들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 이는 여성들에게 더 해당되는데, 여성들의 지위가 낮기 때문이다; 여성의 기독교 신앙이 발견되면 강제결혼, 성적 학대 가택연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슬람을 떠나는 배교에 대한 사형죄 적용은 여전히 시행 중이다. 외국인 크리스천들도 전도행위를 하거나 모임을 갖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할 수 있다.

오픈도어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성경과 신앙훈련 자료들을 배포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하나님께서 인터넷을 사용하셔서 사우디 성도들을 견고케 하시고 사우디 교회를 성장케 하시도록.
- 주님께서 성도와 불신자 모두에게 꿈과 환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도록.
-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보호가 함께 하도록.

15 몰디브



인구
459,000명 / 기독교인 극소수
지도자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대통령
박해지수 (1점 감소)



몰디브는 많은 이들에게 호화로운 휴일 관광지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 뒤에는 섭전체를 100퍼센트 무슬림으로 유지하겠다는 억압적인 정권이 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학대와 폭력과 투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조차도 서로의 신앙을 비밀로 해서 모를 수 있다. 외국인 크리스천들은, 대다수가 여행관련업 근로자들로 인도와 스리랑카인들인데, 역시 감시를 당하고, 크리스천 모임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오픈도어는 몰디브의 성도들의 위한 기도후원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 주님께서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주시도록.
-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용하셔서 몰디브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도록.
- 정부지도자들, 특히 솔리 대통령이 크리스천들과 기타 소수종교인들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39 브루나이



인구
445,000 명 / 기독교인 52,000 명
지도자
술탄(국왕) 하사날 볼키아
박해지수 (1점 증가)



이슬람을 떠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브루나이에서 불법이다.

개종을 하면 가족으로부터 의절되고 강제이혼을 당할 수 있다. 가족을 떠나야 한다. 비전통적인 크리스천 공동체들은 교회로 등록될 수가 없고 대신 회사, 단체, 가족센터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에 공공연한 폭력의 거의 없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심한 차별과 학대를 매일 느낀다. 샤리아법(이슬람법)이 2019년 4월부터 완전히 시행되면서 크리스천들의 두려움이 더 커졌다.

오픈도어는 브루나이의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후원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 브루나이 성도들이 강건하고 용기를 얻기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 가족으로부터 박해에 직면하는 무슬림 출신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주시기를.
- 브루나이 술탄(국왕)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계시를 주시기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파송선교사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해외 파송 선교사 (여성 사역 부분: ○명 / 일반 사역부분: ○명)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현장사역 참여 (제자훈련, 지도자 훈련, 구제·구호 사역 등)
- 여성 사역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사역 참여

> 지원자격

- 교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해외 여행 및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정통 교단 소속 교육부 인가 신학교 졸업 예정이거나 목회학 석사학위 (M.Div)를 받은 분
-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는 분
- 여성사역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 (독신자 우대)
- 연령제한은 45세이나 예외 가능,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담당 교역자 1부, 담당 교수 또는 소속 단체장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 일반 건강검진 결과 (최근 2년, 면접 이후 제출)

> 기관 소개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참조

> 사역 조건

선교파송자는 선교회의 기준에 따라 사역 비용 및 현지 체류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모집 기한

사역자 모집완료까지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문 의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이메일 (info@opendoor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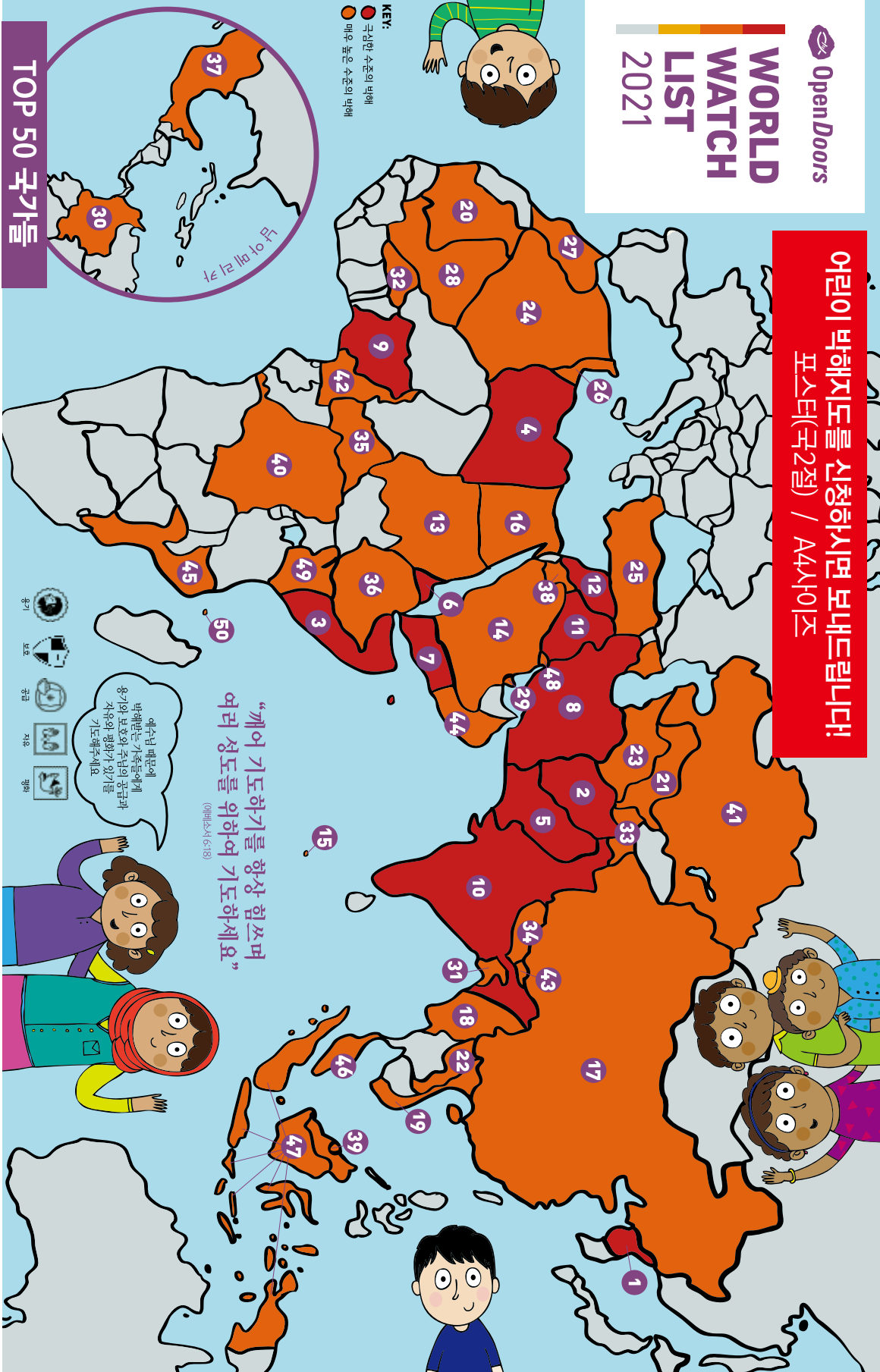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OpenDoors WORLD WATCH LIST 2021

어린이 박해지도를 신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포스터(국2절) / A4사이즈

KEY:
● 극심한 수준의 박해
●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



빅터 형제의 메추라기 사업

빅터 형제는 바실리이 목사님의 교회 마당에 있는 집에서 삽니다. 빅터는 택시 기사였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가 택시에 손님을 태우면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이 사장님의 귀에 들어간 것이 실직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빅터 형제는 오픈도어의 마이크로 대출을 받아서 작은 메추라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메추라기/메추라기 알을 사러 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 '희망의 선물' 6번 (소식지 뒷면)

금액은 국가별 지역별 현장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유롭게 후원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12:26



'월 10,000₩ 개인후원자' 500명,
'월 50,000₩ 후원교회' 100교회
기다립니다!

전세계적인 환경이 점점 더 기독교 박해지역의 성도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만들고 있고 축복받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담과 책임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오픈도어는 더욱 적극적으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오픈도어는 지정헌금 90프로를 박해받는 현지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사무실운영비를 위한 모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초창기와 같은 적은 수의 전임 인력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느라 다각적인 홍보와 개발업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오픈도어의 운영과 개발을 위한 월 1만원 정기후원자, 월 5만원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시고 주위에 소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름(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은행	출금계좌번호	
출금액	10,000₩	출금일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한국오픈도어선교회)

후원요청

코로나(COVID-19)긴급 구호

올해는 그동안의 코로나 여파로 인한
"기아 팬데믹"이 올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긴급구호에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주세요!

코로나후원계좌 SC제일은행 221-10-011008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21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전달/훈련	선물 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 포함	6\$ (7,000₩ ~)
	선물 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선물 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 지원 (SED)	선물 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 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 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선물 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순교자 가족 포함	40\$ (50,000₩ ~)
	선물 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선물 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 지원	20\$ (30,000₩ ~)
난민/투옥자/ 파괴된 교회 지원	선물 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시리아 난민 포함	50\$ (60,000₩ ~)
	선물 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투옥자 포함	50\$ (60,000₩ ~)
	선물 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예배장소 지원	100\$ (120,000₩ ~)

※ 기존 정기후원자님의 후원은 2021년 선물번호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다중선택 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02-596-3171/010-7548-3171) 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이름(예금주):	생년월일(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출금동의서명: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Open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들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